

전국적 흐름

언론악법 날치기, 4대강 사업 강행 처리 등 국민의 여론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일정을 고집하고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문제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도 하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심판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서울에서는 내년 서울 시장 선거를 통해 심판하려 준비하고 있다. 처음에는 좋은 서울시장 만들기에서 시작한 선거 대응 모임이 이제는 수도권, 전국적으로 연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 시장 만들기에서 시작한 진보단체들의 연대 모임인 2010연대, 시민사회단체 원로와 활동가들 중심으로 구성된 희망과 대안 이외에 30여개 단체가 모여 박원순 변호사 시장을 추진하는 민주넷, 친노 그룹 중심의 모임 등 서울에 내년 선거 대응을 위한 연대 기구가 4-5개에 이르고 있다.

경기지역도 원탁회의에서 명칭을 변경하고 출범한 희망광장, 경기교육희망연대 등 선거 대응을 위한 조직이 있다. 민주대연합, 진보대연합, 독자 후보 등 다양한 입장의 차이를 극복하고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